



## “ 탱크로 가로막힌 아이들의 집 앞...”

– 필리핀에도 닥친 코로나 19 상황 –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을 2020년은 연초부터 닥쳐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각보다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월 초, 갑작스레 터진 마닐라의 화산 폭발로 충격을 받았던 필리핀은 곧 이어진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에 긴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필리핀에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며 3월 초부터 수도 마닐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봉쇄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3월 중순부터는 학교들이 수업을 중단했고 모임도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앙헬레스와 세부의 메신저 방과후학교도 임시 중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먼저 마닐라와 같이 루손섬 지역에 속한 앙헬레스는 봉쇄가 심해 주변 지역들로의 이동이 전면 차단되었는데, 순식간에 경찰과 군인들이 중일 게이트를 지키는 준전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빈민가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갑작스런 단절로 연락이 닿지 않자 현지 사역자분은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그들은 당장 집안에 식료품을 구비해두지 못해 기약 없이 굶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선교사님이 급하게 구호품들을 구입하시긴 했는데 막상 전달할 길이 없어 막막해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들에게는 감시가 철저하여 외출 시에는 여권 및 집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까지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급한대로 전체 아이들을 지역별로 나눠 에스더, 야킴 등 큰 아이들과 함께 경계까지 가서 우선 가정당 쌀 한포대와 계란 한판씩을 전해주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몇몇 아이들에게는 끝내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셔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잠시동안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줄곧 잊혀지지 않는데, 두려움과 감사가 섞여 그렇그렁한 눈망울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뜨거운 진심 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까스로 3월 말까지 공부방을 진행할 수 있었던 세부의 상황은 현재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애와 요한 등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살고있는 빈민가인 루츠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후 며칠 사이 130명이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세부 확진자의 90%가 이 지역에 몰리게 되었고, 이에 아이들이 있는 동네는 즉각 험악한 탱크에 둘러싸여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참담한 상황. 선교사님은 짙은 탱크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아우성에 안타까운 마음을 겨우 추스린채 구호품을 전할 방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편인 한국의 상황이 더 낫다고 쉬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달이나 통신, 의료시스템 등이 훨씬 열악한 그곳의 상황은 더욱 참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처음 겪는 이 보이지 않는 공포에 많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후원자분께서 메신저로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하시며 하신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올해 더없이 시린 봄을 맞이한 대지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바람은 불었고 꽃은 우리 곁에 희망처럼 피어났습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양헬레스 센터〉



작년 10월 양헬레스 센터가 새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까지 근처 교회(Balibago Harvest Church)의 공간을 빌려 사용하느라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적절한 시기, 타재단(지앤엠재단)의 긴급 후원을 얻어 독립된 장소를 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담하지만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지붕이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류 후원품을 나누는 것으로 본격 시작된 센터 일정은 매주 토요일 성경공부와 합창단 연습, 악기 수업을 하며 점점 더 모이기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메신저 장학생이었던 한나가 한국의 의사고시와 비슷한 성격의 상담심리학사 시험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와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12월의 성탄행사(12/14)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뷔페에서 열렸는데, 2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뜻 행사 장소를 제공해주신 9292식당과 앵그리크랩의 사장님은 평소에도 메신저의 숨은 봉사자로 함께해주시며 여러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장기자랑과 태권도 시범, 악기연주와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더욱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은 1박2일(12/30~12/31) 동안 가진 합창세미나의 시간으로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신 세종대 박영섭 보컬교수님 및 악기지도팀 7명이 함께한 시간으로 그동안 아이들의 부족했던 부분을 교정받아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8년 넘게 센터를 맡아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김종란 선교사님이 올해 초 사임하시며, 4월부터는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구제 사역을 이어오신 조근묵 선교사님이 아이들과 함께해주십니다.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세부 센터〉



10월은 각 학교의 시험이 있는 달로 공부방의 아이들은 방과 후 어김없이 센터로 모여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긴장하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대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는 근처 수영장으로 가을 소풍(10/26)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더운 나라라 가을에도 수영장으로 야유회를 떠나 더위를 식히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냥 귀엽습니다. 하루종일 깔깔대며 물놀이 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2월에는 한국에서 후원받은 구충제를 아이들과 센터 스태프들 50여명이 함께 복용하며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9일에는 바이블캠프를 진행했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야식과 영화감상을 즐기며 곧 있을 성탄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2일, 2시부터 열린 행사에는 240여명이라는 큰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여 함께 메신저의 단체티를 맞춰 입고 장기자랑을 뽐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구성된 어린이 찬양팀의 찬양 인도가 인상적이었는데, 푸짐한 식사(바베큐)에 선물까지 더해져 풍성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닥터큐'의 식수와 '콤마 베이커리'의 케이크, 현지 재활용품점인 'CNS'의 헌옷 기부까지 이어져 더욱 감동적이었던 행사는 7시가 넘어서야 겨우 마쳐졌습니다. 12월 30일과 31일에는 '굿바이 2019 캠프'를 통해 예배와 식사를 나누고 불꽃놀이를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해의 기대감을 담아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연말 세부 공부방에는 그동안 노후했던 차량이 결국 고장이 나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열림교회(이인선 담임목사님)의 후원으로 새해 시작부터 튼튼한 셔틀 차량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게 아이들의 귀가를 도울 수 있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1월에는 예산제일교회에서 33명의 선교팀이 방문(1/13~1/17)하여 아이들과 성경공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선교팀의 후원으로 워터파크에도 다녀오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었습니다.



# 메신저 사역보고 〈본부〉



본부는 연말 <2019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시작으로 정기이사회를 통해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등을 집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초에는 외교부 및 국세청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은 메신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기타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올봄 10년 이상 노후된 사무실 곳곳을 보수 및 정리하며 포스트 10년을 위해 재정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기, 메신저로 참 많은 후원금들이 전해져 감동을 더했습니다. 먼저 1월초에는 김다빈, 안승환 부부가 작년 이어 1천만원의 특별후원금을 전달해주었고, 2월에는 재작년 멤버스테이 때 방문했던 새에덴교회에서 2천만원의 후원금을, 3월에는 뉴서울성모재활요양병원의 차민경 이사님께서 5백만원의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선광티앤에스와 (주)우주텔레콤, 두 기업에서는 올해부터 각각 50만원씩의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번 아이들에게 예쁜 신발을 선물해주시는 이태경 대표님(경주 모다아울렛 S마켓)께서는 올봄에도 잊지 않고 50컬레 상당의 새 운동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특별 기금 후원을 해준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영어성경책(NKJV) 100권과 빔프로젝터를 추가로 지원해주어 각 사역지로 잘 전달을 마쳤습니다.



2월 중순(2/13~2/16)에는 김명기 사무총장님께서 이번에 담당 사역자가 바뀌는 앙헬레스 센터에 방문하시어 사역지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사역에 관해 논의하시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부터 함께하시실 조근묵 선교사님께서 센터에서 이미 1년 가까이 봉사하며 함께 섬겨주셨던 분인데, 현지 사역의 오랜 경험으로 따갈로그어와 영어 모두를 유창하게 구사하실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펼쳐질 사역이 정말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마닐라에서도 사역이 재개되어 김경아 선교사님과 함께 10여명의 코피노 아이들을 돌보아 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부 - 아이단(광식), 안드레(광태), 신재네의 가정회복

아이단(광식)네 삼남매는 엄마 쉐를린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귀여운 코피노 아이들입니다. 이 가족은 엄마가 새로 재가한 현지인 아빠와 함께 세부의 한 산골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심해진 고부갈등과 가정불화로 인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고 있으시긴 하지만 한창 커가는 시기에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이 가정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세부 - 수아와 타일러 집 화재로 전소

3월 17일, 수아와 타일러가 살고있는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들 가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이웃집에서 시작된 화재는 주변의 총 150가구를 전소시키는 큰 규모였는데, 당시 핸드폰조차 챙기지 못하고 강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집이 전소되어 근처 농구장에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텐트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중, 당장 입을 옷도 없다는 수아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선교사님께서 센터에 후원품으로 있던 옷가지와 기저귀, 식료품 등을 전해주고 오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부 - 의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리자(이리사)

세부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은 가야하는 레이트라는 섬에 살고 있는 리자는 열네살의 예쁜 소녀입니다. 리자의 할머니가 세부시외의 외곽에 살고 계셔서 할머니 댁에 올 때면 센터의 공부방에 들러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현재 공립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부를 매우 잘해 학교에서 특별반에 뽑혀 생명과학, 화학 등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수업을 이수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했던 리사에게 메신저에서 성탄절에 노트북을 선물해주었는데, 미래에 좋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꿈을 이루기를 기대해봅니다.



### 안헬레스 - 태권 소녀 에렘과 은

행사 때마다 태권도의 멋진 품새를 시범해주는 에렘과 은자매는 작년 가을 필리핀에서 있었던 전국 태권도 대회(11/9)에서 또 당당하게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두 아이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김명남 목사님의 후원으로 현재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데, 대회가 열릴 때마다 메신저에서 심사비 및 참가비 등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3월에 열렸던 2단 심사에도 무사히 패스했는데, 앞으로도 코피노 동생들에게 계속 씩씩한 모습으로 든든한 태권 선배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과의 후원 협약식

“든든한 아빠처럼 편한 친구처럼, 서로를 향한 따뜻한 포용으로 기억되는 날”



메신저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후원금 감소로 오랜 기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이하 지앤엠)에 코피노 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금 후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한 협약식이 작년 11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피노 일행 및 스템 등 메신저 측 인원 45명에 지앤엠(G&M) 재단 측 인원 10여명 까지 총 6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마닐라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는데, (사)메신저인테너셔널과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의 양측 대표님 외에도 많은 관계자분들이 자리를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참석한 코피노 아동들은 앙헬레스에서 온 야킴, 하늘이 등 고학년 12명과 유리, 이니고 등 저학년 16명이었는데, 이외에도 그들의 보호자 14명이 함께하여 더욱 가족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미리 준비한 예쁜 꽃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중간에 아이들의 깜짝 태권도 시범도 이어지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후 참석 인사들의 짝막한 소개가 지난 후 그동안의 메신저 활동 영상을 함께 보면서 사역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멀리서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와준 특별한 손님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연신 사진을 찍었고, 어른들은 아쉬움에 아빠같이 따뜻한 포용으로 오래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닐라 방문도 생전 처음인 아이들은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뷔페를 맘껏 먹고 페이스페인팅까지 하며 연신 신기해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힘들었던 삶에 소중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남겨진 사진들처럼 서로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그리고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기관 후원 보고 II

## 앙헬레스 새센터 오픈식

### “메신저 김춘호 이사장님의 깜짝 방문과 사랑가득 책가방 선물”



앙헬레스 센터는 지난 8년 동안 이사를 5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매번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장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근처 교회의 한 공간을 임시로 빌려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사용하던 현지 교회가 갑작스런 건물주의 용도변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우리 센터도 어쩔 수 없이 새 공간을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 지앤엠 재단의 특별 운영기금을 지원받게 되며 작지만 든든한 우리만의 새 장소를 찾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신흥 개발도시로 부상하며 임대료가 폭등한 앙헬레스 내에서 적절한 금액의 장소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렵사리 장소를 구한 후에는 수리를 위해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사 갈 때 대부분 전기를 선만 남기고 소켓까지 다 빼가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화장실에 붙어있는 샤워기마저 없어서 비품을 새로 다 설치해야 했습니다. 건물 곳곳의 보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당에 벽걸이용 선풍기와 환풍기까지 설치하고 나니 제법 멋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신저 멤버들은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이곳에 찾아와 편하게 기도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월 14일에는 본부의 김춘호 이사장님께서 함께 오픈식에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어주셨고, 지앤엠에서 준비한 책가방 선물까지 더해져 모두가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는 근처 뷔페로 이동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평소 매주 토요일 영어공부 및 합창, 악기 연습 등을 해왔는데, 이제는 매월 함께 리딩 바이블을 시작하여 성경을 한번은 영어로, 한번은 따갈로그어로 번갈아 읽으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길 응원합니다!





\* 필리핀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세부 공부방의 아이들이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보내준 사진

## 공지사항

1. 메신저 멤버스데이가 11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10주년 기념으로 초청된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입 필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마음을 모아주세요

1. 한국과 필리핀,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감염증의 해결과 회복을 위해
2. 2020 메신저 멤버스데이의 일정과 준비를 위해
3. 각 지부(앙헬레스, 세부, 마닐라)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조근묵, 최주영, 김정석, 유희선, 김경아 선교사님)
4. 앙헬레스 센터 담당자로 새로 세워지신 조근묵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5. 메신저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